

주민자치회 전국 확대 법적근거 마련

민주 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설치·운영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토록 규정... "제도적 한계 극복 노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을)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



회의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가능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돼야 함

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써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방학 동안 놀이·학습 공백 해소

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온라인 방학놀이터' 운영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김정호)이 18일부터 '온라인 방학놀이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방학놀이터'는 방학 동안 놀이와 학습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과학과 미술, 북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방학놀이터 프로그램은 '꼬마과학자' 과학여행, '꼬마미술가' 과학의 세계, '꼬마작가' 과학이야기

로 소리의 전달, 인체의 신비, 물의 순환 등 각각 5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김정호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이번 온라인 방학놀이터를 통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놀면서 배움의 기쁨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방학놀이터는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www.jbchil.d.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

국정운영 방향 설명 온오프 방식으로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신년 기자회견은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TV로 생중계되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2018·2019·202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정치·사회·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됐다.

내·외신 출입기자 20명만 현장에 자리하며, 100명은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는 200여명의 내·외신 출입기자들이 자리했었다.

청와대는 신년 기자회견 전용 세트장 준비를 위해 일주일 동안 춘추관 브리핑장 공사를 나섰다. /뉴스1



지난 15일 청와대 춘추관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는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취재진을 위한 모니터와 현장 취재진을 위한 테이블이 함께 설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신년 기자회견은 18일 온오프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신 접종부터 전 과정 지휘해달라"

문 대통령, 백신 접종 계획 보고받아 "정은경 질병청장 전권 갖고 지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계획을 보고 받고, 접종부터 집단면역 형성까지의 전 과정을 순조롭게 지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05분 동안 청와대에서 정 청장에게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준비계획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

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백신 도입 후 실제 접종까지 많은 관계 부처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정 청장 지휘 아래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나해 우리 나라가 방역에 성공을 거둔 요인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국민 협조를 이끌어낸 건 방역 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소상

히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 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보관에서부터 운송, 접종, 효과 확인, 집단 면역 등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며 "(우리) 행정 역량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잘 해달라"고 격려했다. /뉴스1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고 최대 9.15% 할인 받으세요"

전북도,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한도 동일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3월, 6월, 9월에는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이 공제돼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올해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신규 차량 2,000cc 기준으로 4만7,58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세금 납부 기한은 2월 1일까지로 동일하다. 세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유희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전북도가 18일부터 2월 1일까지 도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분야는 노인건강과 취미활동·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활동, 노인 인식개선 및 노인권익 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행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은 제외한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